

# 전국 청소년들, 광주서 '꿈의 오케스트라' 펼친다

20개 지역 750여명 합동공연  
28~29일 문화전당 극장1·2  
지도교사의 '선생님 콘서트'도



'꿈의 오케스트라'가 28~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합동공연을 연다. 지난해 전라권 공연 모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공>

음악으로 협동을 배우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꿈의 오케스트라'가 광주에서 첫 합동공연을 연다.

전국 20개 지역 750여 명이 꾸미는 '2018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합동공연'이 오는 28~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2에서 열린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시스템 '엘 시스테마'의 한국판으로,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악기를 통한 감수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43개의 거점 기관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의 합동공연을 시작으로 통영국제음악당, 서울 예술의 전당에 이어 여섯 번째 열리는

합동공연으로 광주에서는 처음 열린다.

광주와 무안, 목포, 전북 익산, 부안지역의 거점기관들이 모인 전라권 합동공연은 28일 오후 7시 문화전당 극장1에서 볼 수 있다. 오산과 충청권 연합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갖는 전라권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1악장',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을 무대에 올린다.

오산지역은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몬테규기와 캐플릿가' 등 4곡을, 충청권은 슈베르트 '군대행진곡' 등 6곡으로 기량을 발휘한다. 강원권과 경상권의 합동 공연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극장1에서 진행된다.

오케스트라 지도 교사의 연주를 함께 듣는 '선생님 콘서트'도 마련됐다. 28일 오후 5시 30분부터 극장 2에서 경상권, 강원권

지도교사들이 엘가 '사랑의 인사', 헨델 '미뉴에트' 등을 선보인다.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전라권 교사가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136번 전 악장'을 오산지역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네순도르파', 충청권은 보로딘의 오페라 '이그르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전석 무료. 문의 02-575-912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문화읽기

"매일 밤 침대에서 잠을 잘 때마다 음악에 눈을 뜰 수 없다면 좋겠다."  
죽기 4년 전 우울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비하에 빠져 있던 슈베르트의 말이다.



김선철  
작곡가

질퍽한 나뭇잎이 앙상한 나뭇가지로 바뀌고 거리를 나뉘는 바삭 마른 낙엽의 계절에 병과 사랑의 실패, 가난이 함께한 비극적 인생의 작곡가 슈베르트가 떠오른다. 슈베르트는 어쩌면 가을과 가장 어울리는 작곡가일지도 모른다.

주옥같은 그의 작품 가운데 특히 마지막 소나타인 '소나타 D960'은 필자에게 특별한 곡이라 마음에 간다. 필자는 1987년 여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났고 도시 곳곳에서 위대한 음악가들의 발자취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빈 중앙묘지를 찾았을 땐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 고전과

음반 자켓에 실린 곡목해설은 소나타의 2악장을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중 20번 '이정표(Wegweise)'의 내용과 연결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왜 사람을 피해 눈 덮인 바위산을 가는 걸까/ 남의 눈을 피할 것을 해 본 적이 없거늘/ 어리석은 생각이 황야를 향해 달리는 걸까/ 저기 이정표가 그곳을 가리킨다/ 나는 안식도 없는, 안식을 바랄 수도 없는/ 끝없는 방랑의 길을 가고 또 간다."

## 가을과 슈베르트

낭만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무덤 앞에서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동으로 고개를 숙였다.

유학 초기에는 베토벤의 음악에 심취해 그의 흔적을 따라 빈 시내를 돌아 다녔다. 하지만 빈에서 태어난 작곡가 슈베르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의 가곡과 교향곡 '미완성 교향곡',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 그리고 '피아노5중주 송어' 정도를 알고 있을 뿐이어서 슈베르트의 흔적이 빈 시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다닐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몇 년 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독일로 학교를 옮기게 된 필자는 바흐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슈베르트를 다시 만나게 된다. 바흐가 죽을 때까지 일하고 문힌 토마스 교회 앞에 있는 중고 서점에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디터 체일린(Dietrich Zechlin)이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음반을 사서 들었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때부터 체일린의 피아노연주에 관심을 가지며 음반을 찾아다니던 중 그가 연주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960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는 바로 고백하게 됐다.

"아! 슈베르트, 내가 당신을 알지 못했군. 당신의 진정 아름다운 슬픔의 노래를."

이 시를 읽고 나서 소나타 2악장을 다시 들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다. 마치 다가가 죽음에 체념한 듯, 하지만 나그네는 즐거웠고 행복했던 옛 일들을 회상한다. 나그네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아쉬움에 발길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 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슈베르트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필자는 다른 연주자들이 녹음한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D960' 연주도 감상했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고전과 낭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펼쳐 보이는 감동선이 아니라 속으로 묵묵히 다스리는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곡이 끝나면 슈베르트의 힘들었던 삶도 막을 내린다. 독일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슈베르트에게는 더 이상의 전개부도 없고 발전부도 없고 코다도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마침 음반이 존재하고 있다"고.

오는 10월2일 피아니스트 김정원씨가 광주에서 슈베르트 소나타 전곡연주회를 갖는다. 레퍼토리 중에는 '피아노소나타 D960'도 포함돼 있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극 '리어왕'

## 셰익스피어 '리어왕' 새롭게 만난다

극단 사람사이 21·22일 공연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리어왕'을 광주에서 새롭게 만난다.

극단 사람사이가 연극 '리어왕'을 오는 21일(오후 7시 30분), 22일(오후 3시 6시) 광주시남구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사람사이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송정우 극단 사람사이 대표가 연출을 맡은 이번 연극은 1시간 40분 분량으로 만들어졌다.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영상을 곁들여 볼거리를 풍성하게 했다. 통기타를 연주하는 음유시인 역할을 등장시켜 듣는 재미를 더했다. 늙은 리어왕에게는 세 명의 딸 거너릴,

리건, 코델리아가 있다. 재물을 얻어내기 위해 거너릴과 리건은 온갖 과장으로 아버지에게 아부하지만 코델리아는 솔직한 답변을 했다는 죄로 추방당한다. 이후 정권을 차지한 두 딸에게 버림받은 리어왕은 폭풍이 몰아치는 황야를 헤맨다. 이 작품은 진실의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인간 정체성을 냉혹하게 들여다본다.

리어왕은 '거룩한 직업', '사평역' 등에서 강렬한 연기를 펼친 중견배우 박규상이 맡았다. 송정우(글로스터), 최진영(켄트), 문지혜(거너릴), 최현정(리건), 조혜수(코델리아), 안윤국(에드거), 이영환(에드먼드), 정다현(바보광대), 오영목(음유시인), 한중신(오스왈드) 등이 출연한다. 전석 2만5000원(청소년 1만원). 문의 010-3864-9944. /백희준 기자 bhj@



광주시립합창단

##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클래식·가곡·가요

광주시립합창단 20일 연주회

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74회 정기연주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를 연다.

연주회는 클래식부터 한국가곡, 뮤지컬, 가요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꾸며진다.

이준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연극인인 오페라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오영씨의 해설로 진행된다. 신디사이저 강윤숙, 베이스 기타 김성광, 드럼 원익준, 기타 김한빈 등이 협연한다. 무대는 비발디의 '예루살렘아 찬양하라'로 문을 연다. 이어 차혜원 작곡가가 합창에 맞게 편곡한 가곡 '꽃구름 속에와

'그리운 마음'을 만난다. 국 현 전남대의 과대학교수가 작곡한 '여미에서'도 선보인다. 또 바리톤 손승범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피가로의 아리아 '나는 마을의 만능일꾼'을 열창하며 메조소프라노 오지영은 제롬 쿤의 '베리 워 포 메이' 중 '당신의 모든 것'을 무대에 올린다.

여성합창은 '솔베이지의 노래'를, 남성합창은 미국 흑인노예들의 종교적 민요 '산에 오르리'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혼성합창 무대에서는 '리얼 그룹'의 '함께 부르는 새 노래', '베사메 무췌', '빙고'를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관객 500명에게는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담긴 CD를 증정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415-5203. /백희준 기자 bhj@

## 제16회 전라남도 서예전람회 입상자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전라남도지회(지회장 최승수)에서 주최하는 제16회 전남서예전람회 입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 ◆접수 : 총 1059점 ◆심사 : 9월 8일 보성다향체육관 ◆입상 : 대상1점, 최우수상(이사장상)1점, 남재상1점, 우수상 8점, 특선 156점, 입선 204(초대추천113)점 등 총 371(초대추천포함484)점
- ◆입상작 전시 : 11월 3일 ~ 6일 보성다향체육관 ◆시상식 : 11월 3일 오후 2시 보성군 다향체육관
- 지회장 : 최승수 ●운영위원장 : 백준선 ●운영위원 : 송전석, 김상희, 이종연, 정여운, 민평기, 안남순 ●심사위원장 : 최동석 ●심사위원 : 백형은, 신수일, 이해근, 지양식, 정철수, 지부장 추천심사위원 각 2명

대상	특선(156점)	입선(204점)
박두천(해서)-정지상시	전서 (7점) 김경직 김종식 김찬수 박명숙 박학태 이나영 정상윤	전서 (7점) 김선홍 김현숙 서승남 양찬우 진용욱 최호범 황광숙
이사장상	예서 (31점) 김광식 김광태 김병주 김석재 김선숙 김애라 김영철 김은선 김재홍 김종길 김현순 박수정 서원석 서행연 신경식 신용재 안주환 윤희중 이만수 이영환 이종미 정금모 정승기 정원근 최병길 최현숙 허문범 허이부 형상우 홍현덕 황수현	예서 (29점) 강길수 강현준 권문옥 김경수 김경양 김동연 김영주 김주현 김준기 나병자 도지영 류도수 박상식 박석규 박영재 반지호 신영수 신창철 심왕섭 양병호 양승화 양오석 양영숙 임혜선 장창기 정정남 정정용 조수만 추정수
남재상	해서 (52점) 강경남 강중수 김대봉 김도화 김동원 김명숙 김방용 김성근 김영일 김용일 김인식 김종현 김중호 김해설 김형자 나종근 나화숙 마원식 박석주 박찬원 서동주 서래원 서민주 서삼중 송선성 송영기 안문환 안재남 양진영 윤 장 윤영규 이경수 이수갑 이연희 이점순 이창기 장봉석 정경순 정복암 정순식 정승기 정영희 정재성 조성진 조영근 조영호 주종태 최남호 최희희 최현숙 하재현 홍윤표	해서 (69점) 강기조 강영중 고택원 권성빈 김 윤 김경서 김민재 김병천 김석호 김성경 김수현 김영선 김영일 김영주 김용태 김윤일 김재이 김경환 김행태 노영민 노정태 도중숙 문부식 문성식 박명우 박무용 박선희 박혜숙 박재철 서경식 서상철 서성산 서지혜 성낙범 손상국 손태호 송서혁 송재우 송찬동 신기식 신상식 신정순 신중열 안병선 안인현 안중욱 양희심 오병무 유동제 유선태 유송학 유상용 윤희숙 이강원 이경호 이광주 이국철 이근선 이기찬 이종문 이현석 장재후 전문식 전선이 전영문 정영경 조은용 조장원 주현남 지승도 지순덕 진홍석 최 병 최계성 최문수 최봉을 최영만 최용수 최우현 최효삼 황관규 한상규 황문자
우수상	행초 (51점) 강나실 강정부 고묘순 고선재 김만석 김병남 김병태 김석기 김성남 김연식 김영은 김정열 김주화 김태식 김현길 김현수 문병호 박미영 박승인 박옥병 박이남 박종규 박종규 박종근 박동연 서무일 송은숙 안금식 안종덕 오무철 윤영관 윤현주 이금수 이만석 이수연 이용지 이인석 이현호 임병윤 임삼순 정문환 정병택 정순희 정윤근 정정희 조석훈 조성익 조현숙 조희욱 최영란 황현택	행초 (83점) 고병국 공경심 권순오 김남배 김남순 김민수 김병기 김부기 김삼남 김석환 김순진 김원근 김인주 김진희 김창근 김철진 김형석 노중건 류성규 류왕상 문상일 박경운 박남균 박대성 박병호 박승연 박장욱 박재철 서경식 서상철 서성산 서지혜 성낙범 손상국 손태호 송서혁 송재우 송찬동 신기식 신상식 신정순 신중열 안병선 안인현 안중욱 양희심 오병무 유동제 유선태 유송학 유상용 윤희숙 이강원 이경호 이광주 이국철 이근선 이기찬 이종문 이현석 장재후 전문식 전선이 전영문 정영경 조은용 조장원 주현남 지승도 지순덕 진홍석 최 병 최계성 최문수 최봉을 최영만 최용수 최우현 최효삼 황관규 한상규 황문자
	한글 (7점) 김명순 서민술 서종영 이윤용 임정만 장학모 추무영	한글 (4점) 김 호 박희용 오상은 제정욱
	문인화 (6점) 김미진 김준기 원용홍 이강숙 최희순 박옥희	문인화 (10점) 김선미 김종철 류수의 류숙하 송정숙 윤재권 이재광 정근자 최광용 최영덕
	서각 (1점) 장민석	캘리그래피 (2점) 김은영 전춘주
	캘리그래피 (1점) 경명숙	